

안전한 먹거리 도 · 농이 함께 만들자

박 영 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요새 큰 서점에 들러보면 유난히 붐비는 모퉁이가 있다. 건강관련 출판물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다. 건강식품과 식이요법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이 많이 나와있는 것이 눈에 띈다.

국민소득이 상당수준에 달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그 동안 인류에게 희소식으로 인식되었던 녹색혁명의 밑거름인 화학비료와 농약이 오늘의 먹거리를 오염시켜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민들 사이에는 고된 노동이 따르고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자연의 맛을 되찾고 불안감 없이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험부담을 안고 전환한 유기농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확대해 나가기에는 생산품의 유통과 가공 그리고 소비 등의 기반구축이 되어 있지 못한데 있다.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목표하고있는 팔당 상수원 유기농업운동본부의 임원의 말을 빌면 오늘의 생산성위주의 농업현실에서 유기농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탄광에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노력과도 같이 어려운 과제라고 한다.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생산품의 판로확보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서울시민상대 환경농업 설문조사에 의하면 65%의 가구가 농산물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해 없는 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농민은 판로의 문제를, 환경소비자는 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정부, 농협,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자, 식품가공업자, 외식업, 백화점 또는 슈퍼마켓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유기농업의 유지는 경영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내외에서 선호하고 있는 유통구조는 직거래방식이다. 이것은 시장을 통한 유통구조에서는 생산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생산에 따른 위험부담을 소비자와 분담하는 것이다. 안전한 먹거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도 · 농간의 공동체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오늘의 사회구조에서 이 과제의 실현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구가 종교 기구이다. 그 이유는 종교기구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이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의 광장을 보유하고 있는 데서이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조직이다.

'97년 세계환경의날을 기해 종교계에서는 환경 살리기 운동에 발벗고 나설 것을 선언하면서 유기농산물과 환경상품을 판매하는 환경살림터를 종교시설을 이용하여 확산해나가기로 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만이 아닌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을 위한 지력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선언으로써만이 아닌 실천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안전한 먹거리 도 · 농이 함께 만들자

박 영 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요새 큰 서점에 들러보면 유난히 봄비는 모퉁이가 있다. 건강관련 출판물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다. 건강식품과 식이요법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이 많이 나와있는 것이 눈에 띈다.

국민소득이 상당수준에 달하면서(소득가설:5000불 이상일 때 환경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 시작)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그 동안 인류에게 희소식으로 인식되었던 녹색혁명의 밑거름인 화학비료와 농약이 오늘의 먹거리를 오염시켜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민들 사이에는 고된 노동이 따르고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자연의 맛을 되찾고 불안감 없이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험부담을 안고 전환한 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확대해 나가기에는 생산품의 유통과 가공 그리고 소비 등의 기반구축이 되어 있지 못한데 있다.

22103 수확된 이상수준인 생산량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농업인의 말을 빌면 오늘의 생산성 향상 농업 현실에서 유기농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탄광에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노력과도 같이 어려운 과제라고 한다.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생산품의 판로확보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서울시민상대 환경농업 설문조사에 의하면 65%의 가구가 농산물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해 없는 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농민은 판로의 문제를, 소비자는 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부, 농협,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자, 식품가공업자, 외식업, 백화점 또는 슈퍼마켓 등에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협활동을 통한 직거래운동을 거쳐 유기농산물의 생산량과 수요 및 소비의 증대를 배경으로 이제는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유통주체가 유기농산물 시장에 참여하여 유통구조가 변하고 유통량도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은 재배기준, 표시기준 그리고 안전성 확인방법 등의 문제해결에 주력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기농업에서 중시하는 것은 경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도 선호하고 있는 유통구조는 직거래방안이다. 이것은 시장을 통한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생산에 따른 위험부담을 생산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담하는 것이다. 저구사회에서 아직도 성행하고 미국의 <농민시장>을 비롯한 마을마다의 장터운영은 우리 나라의 지역주부조직에 의한 직거래운동에 추가해서 운영해 볼만한 것이다.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때에 제값으로 손쉽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농민들이 판로의 걱정 없이 생계가 가능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해진다. 안전한 먹거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도·농간의 공동체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사회구조에서 이 과제의 실현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구가 종교 기구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이유는 종교기구는 같은 신앙을 가진 집합체이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의 광장을 소유하고 있는데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세계환경의날을 기해 종교계에서는 환경 살리기 운동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녹색십계명을 제정·선포, 자연학습장 등을 설치·운영, 유기농산물과 환경상품을 판매하는 환경살림터를 종교시설을 이용하여 확산해나가기로 한 것은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말로써만이 아닌 실천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확대된
환경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념, 실천으로

안전한 먹거리 도·농이 함께 만들자

요새 큰 서점에 들러보면 유난히 봄비는 모통이가 있다. 건강관련 출판물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다. 건강식품과 식이요법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국민소득이 상당수준에 달

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그동안 인류에게 희소식으로 인식되었던 녹색혁명의 밑거름인 화학비료와 농약이 오늘의 먹거리를 오염시켜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민들 사이에는 고된 노동이 따르고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자연의 맛을 되찾고 불안감없이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험부담을 안고 전환한 유기농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확대해 나가기에는 생산품의 유통과 가공 그리고 소비 등의 기반구축이 되어있지 못한 데 있다.

수도원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하고 있는 팔당상수원 유기농업운동본부의 임원의 말을 빌면 오늘의 생산성 위주의 농업현실에서 유기농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탄광에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노력과도 같이 어려운 과제라고 한다.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생산품의 판로확보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서울 시민상대 환경농업 설문조사에 의하면 65%의 가구가 농산물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해없는 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농민은



박 영 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판로의 문제를, 환경소비자는 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정부, 농협,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자, 식품가공업자, 외식업, 백화점 또는 슈퍼마켓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

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유기농업의 유지는 경영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내외에서 선호하고 있는 유통구조는 직거래방식이다. 이것은 시장을 통한 유통구조에서는 생산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생산에 따른 위험부담을 소비자와 분담하는 것이다. 안전한 먹거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도·농간의 공동체관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오늘의 사회구조에서 이 과제의 실현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구가 종교 기구이다. 그 이유는 종교기구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이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의 광장을 보유하고 있는 데서이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조직이다.

'97년 세계환경의 날을 기해 종교계에서 환경 살리기 운동에 발벗고 나설 것을 선언하면서 유기농산물과 환경상품을 판매하는 환경살림터를 종교시설을 이용하여 확산해 나가기로 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만이 아닌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을 위한 지력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선언으로써가 아닌 실천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